

4) 불재(火峴)

낙안은 1908년까지 굳이였으며, 제석산·오봉산·금전산·백이산·존자산·금화산이 사방을 에워싼 분지다. 기름진 들이 있어 관안민락(官安民樂)의 고장이요, 옛 성이 보존되어 민속촌으로 근래에 각광을 받는 곳이다. 동문 밖에서 개울을 따라 저수지를 지나 용추(龍湫)폭포를 거슬러올라 고개를 넘으면 창령이 나온다. 이 고개가 불재이며, 한자로 화현(火峴)이라 쓴다. ‘불’을 화(火)로, ‘재’를 현(峴)으로 뜻웁김 한 표기이다. 불재와 관련된 전설은 다음과 같다.

아득한 옛날 한 붓짐장수가 낙안고개를 넘고 있었다. 사방이 칙흑같은 어두운 밤이었다. 그는 고개에서 귀신이 나온다고 만류하는 주민의 말을 뿌리치고 혼자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다. 청년 붓짐장수는 열심히 고개마루를 향했다. 중턱을 넘어갈 때 별안간 먹장구름이 몰려오더니 소나기가 쏟아졌다.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다. 다만 파랗게 번쩍이는 번갯불만이 시야를 밝혀줄 뿐이었다. 등에 진 약제가 젖을까봐 비를 피할 곳을 두리번거리며 찾았다. 그런데 번갯불 틈으로 희미하게 작은 초가가 보였다.

“올다. 됐구나!”

하고 그 초가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그때 다시 빗줄기가 거칠어지더니 우박으로 변해 딱딱따 딱 하고 콩북는 소리가 났다. 초가로 급히 들어갔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불빛이 비쳤는데 막상 들어서니 지붕에서 비가 새는 빈집이다. 청년 붓짐 장수는 붓짐을 내려놓고 주위를 살폈다. 상여막이었다. 상여만이 덩그렇게 놓여 있고 짚신과 꼬투리가 번갯불에 언뜻 보였다. 무섭증이 순간 들었다. 그러나 기왕 들어온 터라 비가 덜 새는 곳을 찾았다. 거기는 관을 넣어 놓은 상여가 있는 곳이었다.

우선 붓짐과 약제를 상여 속에 넣었다. 무서웠다. 주민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내친 걸음이라 되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였다. 청년은 관 속으로 몸을 들이밀고 그 밑을 들여다 보았다. 뭉클하고 무슨 물체가 잡혔다. 기겁을 하고 물러섰다.

“아니 송장이 아닌가?”

그때다. 그 물체가 벌떡 일어나 기괴한 웃음을 짓고 덤벼들었다.

“히히히, 이 놈이 여기가 어딘데 함부로 들어와 무례한 행동을 하느냐? 죽어봐라! 이 놈아!” 하고 보니 송장이 아니라 귀신이였다. 머리를 산발하고 손톱은 송곳같이 뾰족하고 두 눈은 깊숙이 들어가 해골 같고 찢어진 치마에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들었다.

청년은 정신을 바짝 차려 귀신을 향해 크게 외쳤다.

“사람이나? 귀신이나? 귀신이면 물러가고, 사람이면 무릎을 꿇어 빌지 않으면 살려두지 않겠다!”

그래도 그 정체 모를 물체는 기묘한 웃음을 짓고,

“이 애송이 놈, 너를 잡아 먹겠다.” 하며 목을 꺾안았다. 그리고 혀를 날름거리며 손톱으로 얼굴을 마구 후볐다.

청년은 그 물체를 쓰러뜨렸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았다. 청년은 오던 길로 뛰었다. 비가 멎고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추고 사방이 흰했다. 청년은 소나무 밑에 주저앉았다. 그때다. 어느 틈에 따라왔는지 귀신이 등 뒤에서 기괴한 웃음을 지으며

“이놈! 너를 잡아 먹겠다!”

하고 얼굴을 핏물이었다. 다시 도망쳤다. 정신없이 달렸다. 박달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자 젊은 여인이 홀로 앉아서 끼룩끼룩 울고 있었다.

“저것도 귀신이다!”

하고 도망치려다 가만 살펴보니 귀신 같지 않았다. 여인은 ‘으흐흐흐’ 웃었다. 머리를 헤집고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외었다

“미친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여인이 쏜살같이 뛰어갔다. 그렇게 빠를 수가 없었다. 청년은 여인의 뒤를 따랐다. 세 갈래 길에 들어서더니 좁은 길을 택해 후미진 쪽으로 향했다. 청년은 계속 따랐다.

여인이 묘에 앉았다. 청년은 숨어서 여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아니!”

여인은 두 손으로 마구 묘를 파헤치는 것이었다. 등골이 오싹했다. 얼마 뒤 넒이 보였다. 청년은 가슴이 섬뜩했다. 여인은 시체를 꺼내고 기괴한 웃음을 짓고 춤을 덩실덩실 추고는 관에서 물을 퍼 얼굴에 바르며 거울을 꺼내 들여다보며 히죽거렸다.

이번에는 시체를 안고 다른 묘로 가다가 바위 위에 시체를 눕히고 칼로 두 눈을 후벼 파 해골을 꺼내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치마 폭에 해골을 감싸고 또 ‘히히히’ 웃으며 뛰어갔다. 청년은 계속 뒤따라갔다.

어느 바위에 이르러 여인이 사라져버렸다.

그때였다. 천둥이 치면서 그 바위에 벼락이 떨어졌다. 청년은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날이 밝았다. 청년은 벌떡 일어났다. 바로 눈 앞에 흰 여우 두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이다. 청년은 “그 여인이 여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벼락이 떨어진 곳에 큰 굴이 생겼고, 여우는 그 벼락에 맞아 죽었다. 청년은 굴 안으로 들어갔다. 방처럼 아담하고, 굴 바닥에서 맑은 물이 솟아올랐다. 그 물을 마시자 정신이 상쾌했다. 그뒤로는 그 고개에서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굴을 굴재굴이라 부르고 재를 불재라고 불렀다.

불재는 천불, 곧 시체를 꺼내 먹는 여우를 벌하러 벼락이 떨어진 재이다. 그러나 『태동지지』에 낙안 읍호를 파지성(波知城)·분사(分沙)·부사(夫沙)·분차(分嗟)라고 백제 때의 지명으로 기록했고, 『혁암전서(旅菴全書)』에 현재 별교읍 홍교동에 있는 홍교(보물 304호)에 대하여 “단교(斷橋)는 옛 이름이 별교(伐橋)인데 이제 와전되어 부언교(夫言橋)라 일컫는다.”고 기술했다.

별교의 별은 ‘벌(原·野·坪)’의 소리윝김이고, 교는 ‘다리’의 뜻윝김이니 ‘벌다리’의 이두식 표기이다. 부언교도 부는 ‘ㅂ’을, 언은 ‘ㄹ’을 나타내는 반절식 표기이니 ‘ㅂ’ 곧 ‘벌’이다. 그러므로 부언교도 ‘벌다리’의 표기일 뿐이다. 이 이름은 별판 들머리에 있는 다리 또는 빨발에 놓인 다리란 뜻이다.

파지성도 별교와 연관하여 고찰하면 파는 ‘ㅂ’을, 지는 ‘ㄹ’을 나타내고 성은 ‘재’의 뜻윝김이므로 ‘ㅂ재(벌재)’의 표기이다. 분차(分嗟)·분사(分沙)·부사(夫沙)·부사(浮沙)·부사(浮槎)도 파지의 다른 표기로 ‘ㅂ물(벌말)’이니 ‘벌재’, ‘벌말’은 들·별판에 있는 마을의 뜻이다. 별교읍의 고읍(古邑)들에 평촌(平村)이 있는데 우리말 이름이 ‘들물(들말)’이다. 불재(火峴)도 ‘ㅂ재’의 이형 표기에 지나지 않는다. ‘ㅂ’을 화(火)로 뜻윝김 해 화현(火峴)이 되고, 소리윝김 해 파지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천불을 받은 재란 뜻이 아니라 별판으로 넘는 재 또는 별판에서 넘는 재의 뜻이고, 바람재(風峙)·접치(接峙)·배티재(船峙)·비월재(飛月峙)처럼 마을이름이면서 재(고개) 이름이듯이 벌재(불재)도 재의 이름이면서 마을이름일 수도 있다.¹⁾

이런 전설을 안은 불재에 석굴(石窟)이 있고 그 굴 안에 샘이 있다. 그 샘을 속칭 ‘처사(處士) 샘’이라 부른다. 일명 ‘구능수’라고 부르는데 이 물로 목욕하고 마시면 모든 병이 낫는다. 만약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면 넘치던 물이 마르고 벌레가 득실거린다고 한다. 『친증동국여지승람』에 이 석굴의 샘에 관한 기록이 있다.

1) 진인호, 『순천과 낙안의 이름』, 『향토문화보』 통권 제13호, 36쪽.

처사가 옛날에 이 샘에서 수도를 하며 금쟁반(물그릇)을 돌로 덮어놓고 승천해버렸는데 석굴 입구 상단에 있는 작은 구멍에서 끼니 때마다 한 끼분의 쌀이 나왔다. 어느 날 손님이 와서 그 구멍을 부지깥이로 쭈셨더니 뜨물만 흘러나온 뒤로 쌀이 나오지 않아 처사가 살지 못하고 하늘로 올라갔다. 지금도 쌀구멍 둘레에 쌀뜨물 같은 차돌이 부풀어 있다.